

다재다능한 대학생을 위한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이 은 진[†]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다재다능한 대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프로그램은 다재다능함으로 인한 진로미결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2회의 정체감 탐색훈련, 2회의 가치기초 의사결정 훈련과 진로계획을 위한 목표설정 훈련의 총 6회로 구성되었다. 프로그램 참가집단은 주 1회씩 총 6번 만나며, 프로그램 종료 3개월 후 추후모임이 있었다. 대기집단은 참가집단과 동일한 조건으로 선발되었으며, 연구 중에는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고 사전사후 검사만 실시하였다. 연구 종료 후, 참가집단과 대기집단 모두 진로확신도,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진로정체감 등에 대한 사전-사후 검사를 받았다. 프로그램 실시 결과 참가집단이 대기집단보다 진로확신도, 진로의사결정 효능감, 직업정체감과 진로탐색 활동 빈도 등이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다재다능한 대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시사하는 바와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 이야기하고 미래 연구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다재다능함, 진로 의사결정 효능감, 진로 진단상담 프로그램

이은진은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서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로 근무하고 있음.

† 교신저자 : 이 은 진, (120-749)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동134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사회계열
전화 : 02-2123-3217 E-mail : lej1130@yonsei.ac.kr

우리 대학생들은 전공이나 직업결정에 중요한 시기인 청소년기에도 대학입시의 중압감 속에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생각은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겨 왔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진로지도는 대학진학 이후로 미루어져 왔으며, 고교에서는 대학선정이나 학업능력이 떨어지는 학생들 위주의 진로지도가 주류를 이루어 온 것이 현실이다. 능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독특한 진로 발달 욕구를 가지며, 보통 학생들과는 다른 어려움을 지녀온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나 미래계획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우수한 학생들의 다재다능함이라는 특성은 어린 시절부터 지적, 사회적, 정서적 능력들이 조화롭게 발달하지 못하거나(Clark, 1979; Roedell, 1984), 여러 가능한 학문적이거나 직업과 연관된 진로목적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고 발달시키는가에 대한 문제(Frederickson, 1979)를 유발하였다.

대학에 진학하면서 이들은 정체감 형성과 진로 목표설정이라는 필수적인 발달과제를 눈앞에 두게 된다. 대학에서의 전공을 구체적으로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공선택은 미래의 직업을 고려한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중요한 결정인 것이다. 자신의 흥미나 목적에 대한 진지한 고려없는 전공의 선택은 졸업 후의 직업선택에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학에서의 진로지도 역시, 적성검사를 통해 능력과 흥미를 확인하고 능력이 모자라 할 수 없는 것은 없으니,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보도록 권유하는데 그치고 있다.

능력이나 관심사 위주로 진로상담을 해 오던 전통적인 방식과 달리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의 경우에는 개인이 가지는 가치에 따른 목적 설정과 의미 있는 정체감 확립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다. 즉 능력 있는 대학생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흥미나

능력보다는 가치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Colangelo & Zaffrann, 1979; Miller, 1981),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Kerr, 1981).

우수함과 관련지어 영재성을 연구하는 이들은 영재들이 지닌 다양하고 많은 능력들에 대해 다재다능함이라는 용어를 써왔으며, 선천적인 재능으로 정의되어온 영재성의 개념과도 동일시 해와왔다. 현재까지 거론된 다재다능함은 인간능력의 본질에 대한 심리측정 개념 속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러한 영재성의 의미는, 특히 높은 지능지수나 학업적 성취와 관련된 것이므로, 학력 우수 학생에 대한 우리의 현재 논의에서 유사한 의미로써 취급되지만, 교과과정 이외의 다른 영역의, 예를 들면 예술이나 지도력 등의 창조적 수행과 같은 다른 형태의 우수성을 이해하는 것까지 포괄하는 개념정의는 아닌 것이다.

최근 문헌들은 다재다능함에 대하여 다양한 능력과 관심 두 가지에 대한 언급이 많아지고 있으며(Berger, 1989; Colangelo, 1991; Delisle & Squires, 1989; Kerr & Erb, 1991; Sanborn, 1979; Silverman, 1993), 자신의 적성을 찾아내고 높은 수준까지 개발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Frederickson, 1972). 이러한 정의는 그들이 연구했던 재능이 뛰어난 학생들이 여러 능력과 성취력 검사에서 일관성 있게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강의실에서의 수행 성취도도 높았으며, 다양한 사회적 활동이나 운동, 지역사회 활동에 참가하고 개인적인 시간들을 잘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데서(Sanborn, 1979) 영향 받은 것이다.

최근에 와서 다재다능함에 관한 연구들에서는 새로운 관심영역으로 대두된 진로선택에 시사점을 주고, 이와 관련하여 용어의 명료화된 정의를 제시하였다(Rysiew, Shore, & Carson, 1994). 여러 연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다재다능함의 정의를 다양한 능력을 지닌 사람들을 묘사하는 것으로

한정할 것을 권했으며, 일반적으로 이로 인한 진로미결정은 능력, 동기, 흥미와 기회 등의 4가지 핵심요소가 풍부해서 발생하는, 기회가 많은데서 오는 문제라 하였다.

Kerr(1981)는 다재다능한 학생들이 진로미결정 문제를 겪게 되는 이유를 세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다양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일 진로선택을 해야하는 상황, 둘째는 필요한 정서적 성숙 전에 먼 장래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 셋째는 개인적인 진로목표와 사회적 기대 간의 불일치로 조정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진로 미결정의 문제를 유발하는데, 미국에서는 고등학교 시절에 현저히 나타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미결정 상황이 청소년의 진로발달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만을 주는 것은 아니며, Holland와 Nichols(1964)는 적성이 다양하고 능력있는 학생들 중에서 진로미결정도가 높은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했다는 학생들보다 더 많은 유능감, 과외활동에서의 높은 성취감, 더 많은 경험과 자원이 풍부한 가정을 가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진로 연구들에서 직업이나 전공에 대해 미결정된 학생들이 더 높은 수준의 능력과 흥미, 동기와 기회를 보고하는 것처럼 보인다(Rysiew et al., 1994).

자신의 진로에 대한 미결정 상황이 진로발달과정에서 많은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오히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서구사회의 현실과 획일적인 기준에 의한 진학과 진로지도 위주인 우리의 상황은 미결정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의 일부나마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입학시 진로미결정수준이 낮은 학생들보다 높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미결정이 능력이나 흥미의 부족으로 설명될 수 없는 변인임을 시사하는 것이

다(연세대학교 학부대학, 2001).

진로발달에 대한 초기이론들은 다양한 집단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지 못했기에 비판을 받아왔다(Hackett & Betz, 1981). 하지만 지난 20년 간 사회학습이론은 다양한 계층의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가치있는 이론구조를 제공해 왔으며, 이후 사회인지 이론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Krumboltz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관련 연구들의 영향으로 진로의사결정에 대한 사회학습이론을 발전시켜왔다(Mitchell & Krumboltz, 1984). 그리고 직업상담 심리학 분야에서 진로 행동들을 이해하는데, 사회인지 이론을 적용하는 연구들이 많아졌다(Borgen, 1991; Hackett & Lent, 1992).

Hackett과 Betz(1981)는 사회학습이론을 진로행동에 적용하였는데, 특히 여성의 진로발달에서 자기효능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들은 주어진 과제 수행에 대한 개인의 신념으로 정의된(Bandura, 1977) 자기 효능감을 진로 심리학에 소개하였다. 주어진 진로를 추구하는데 있어서의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진로 자기효능감을 정의하였으며 특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다고 믿는 신념으로까지 확장시켰다.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사회인지 진로 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 대한 이론적 기초의 제공인데, 진로 자기효능감 의사결정 이론에 개인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매개물들을 포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틀은 기존의 진로 이론들을 통합하고 발달적이고 치료적인 진로 개입에 개념화를 제공하는 두 가지 모두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Lent & Brown, 1996).

이처럼 다양한 능력과 관심사를 지닌 다재다능한 대학생들에게는 일반적인 진로지도와는 차별화되는 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많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재다능한 이들이 겪는 진로와 관련된 어려움을 해결하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Kerr와 Erb(1991)의 학력 우수학생들을 위한 가치기초 진로상담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고 가치명료화 전략과 사회적 영향력 기법, 자기효능감 증진 활동들을 적용하여, 다재다능한 대학생들의 진로 의사결정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한다. 예비연구 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 특성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 학력이 우수하고 다재다능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은 통제 조건(대기집단)과 그 효과를 비교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효과검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사후 검사에서 진로지도 집단상담에 참가한 학생들의 진로확신도가 대기집단보다 높아질 것이다.

가설 2. 사후검사에서 진로지도 집단상담에 참가한 학생들의 진로정체감 수준이 대기집단에 비해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3. 사후검사에서 진로지도 집단상담에 참가한 학생들의 진로효능감 수준이 대기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더 높아질 것이다.

가설 4. 추후검사에서 진로지도 집단상담에 참가한 학생들의 진로탐색을 위한 행동 빈도가 대기집단의 학생들에 비해 증가할 것이다.

방 법

대상

본 프로그램은 Y대학교 학부대학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들 중에 진로결정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처치 조

건의 참가집단과 통제조건의 대기집단에 각각 24명씩 총 48명으로 하였다. 이 가운데 사후평가를 마친 사람은 38명이었다.

집단참가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면접소견 - 담당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의 추천: 희망전공이 2개 이상으로 미결정상태이며, 진로결정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 추천과 학생 흥미조사 도구를 이용한 사전 면접에서 다양한 관심과 흥미가 인정되는 경우

나. 진로결정척도(CDS): 진로확신도 8점 만점에 4점 이하(자신의 진로나 전공 선택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경우)이거나 진로미결정 수준 점수가 25점 미만인 경우(동일계열 학생 644명 평균치에서 1표준편차 이하)

다. 학점: 1학기 평량평균이 3.5이상인 경우, 전공선택과 관련하여 학점이 제한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라. 적성검사: 일반능력 7등급 이상으로 일반능력검사 점수가 34점이상인 경우, 10대 직업적성 분야에서 6개 이상 해당, 능력과 관련된 진로결정의 어려움이 판단되지 않는 경우. 창조성 소검사의 점수가 6점(백분위 60)이상인 경우

절차

진로미결정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집단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이메일로 제공하고 진로미결정 수준점수가 평균보다 높은 학생들을 추천받았다. 참여의사와 학점 확인(평량평균 3.5이상)을 위해 실시된 사전면접에서는 불안이나 다른 임상적 도움이 필요한 내담자인지 여부와 다양한 흥미와 관심을 학생흥미조사지를 이용한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확인하였다.

다재다능한 대학생들을 선정하기 위하여 Renzulli

(1978)의 영재성 정의에 근거하여, 평균이상의 일반능력, 과제집착(task commitment)과 창의성을 특성으로 하는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였다. 평균이상의 일반능력이란 추상적 사고나 언어, 수리력, 공간관계 지각이나 기억 등의 능력과 전문화된 영역의 지식을 의미한다. 과제집착이란 과제해결에 대한 열의 또는 과제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열의나 흥미의 수준이 탁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창의성이란 사고의 유창성과 독창성 그리고 사고나 행동에서 모험을 시도하는 의지력이라고 한다. 일반능력의 검증의 위하여, 학력 면에서 대

학입학을 위한 수학능력시험의 성적과 1학기 학업성적(GPA), 적성검사 결과를 고려하였다. 그리고 담당 학사지도교수(Academic Advisor)의 추천과 연구자와의 면접과정에서 진로 결정에 대한 관심과 동기를 확인하였다. 이후 적성검사 등을 통해 참가자를 최종 확정하였다.

도구

집단프로그램

프로그램의 내용은 학력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1 단계 정체감 탐색	
1회 정서적 유대감 형성과 진로정체감 탐색	2회 진로결정과 진로정체감 이야기하기
· 집단지도자와 참가자 소개 · 가치방패기록 후 발표하기 · 진로결정 경험에 대한 이야기	· 진로발달과정에서의 내외적 문제 기록하기 · 역할벗기
↓ ↓	
2 단계 가치에 기초한 의사결정	
3회 다양한 가치탐색과 가치명료화 소개	4회 가치명료화 의사결정기법 연습
· 가치관경매 실시(일반적 가치 탐색) · 완벽한 미래로의 여행 (상상을 통한 가치확인)	· 존경스런 인물 발견 활동 · 계열적 삭제모형 소개 · 가치명료화 절차에 근거한 진로가치도표 작성 · 과제: 역할모델 구체화 하기
↓ ↓	
3 단계 목표설정과 진로계획 수립	
5회 의미있는 진로목표 설정	6회 구체적인 진로계획 수립
· 역할모델 과제 발표 - 가치와의 연관성 이야기 · 장단기 진로목표 기록표 작성 · 과제: 희망직업 자료조사지 배부	· 희망직업 자료조사 발표 · 단기간 내의 실행목표 수립 · 프로그램 마무리 활동

그림 1. 진로지도 프로그램의 개요

로하는 Kerr와 Erb(1991)의 진로계획 워크숍 프로그램에 진로상담을 위한 가치관 명료화 프로그램(이수용, 1986)과 Sullivan과 Mahalik(2000)의 진로효능감 증진 프로그램의 활동들을 참고하여 연구자가 전공결정을 앞둔 다재다능한 학생들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그림 1에 프로그램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다.

진로지도 프로그램은 매주 2시간1씩 총 6회 실시하였으며 4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 5회와 6회는 2주 간격으로 실시하여 전체적으로 7주가 소요되었으며, 2000년 10월 2일부터 시작하여 11월 30일 종료하였다. 추후검사는 진로탐색 행동 빈도 척도만 사후검사 실시 3개월 이후인 2001년 2월경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상담 심리학 박사과정에 있는 본 연구자가 주상담자로 집단을 이끌었다.

평가도구

본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측정하는 요인은 진로확신도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정체감, 진로탐색 활동빈도이다. 각 변인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검사도구는 진로결정척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단축형, 진로결정상황척도와 진로탐색활동 척도였으며, 측정요인 별로 척도의 일부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상담과정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매 회기 프로그램 참가 후 만족한 정도를 10점 척도 상에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프로그램 실시 전에 상담에 대한 기대와 사후에 프로그램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

진로확신도 평가. Osipow, Carney, Winer, Yanico와 Koshir(1987)가 개발한 진로결정척도(Career Decision Scale)를 허자영(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진로결정 척도는 개인의 진로결정에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확인하고 진로선택과 관련

하여 경험하고 있는 진로미결정 정도를 측정하는 Likert 4점 척도의 자기보고식 문항 18개와 자유반응형 문항 하나가 첨가되어 19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진로정체감 평가. Holland, Daiger와 Power(1980)가 개발한 진로결정상황 척도(My Vocational Situation)는 3개의 하위영역, 진로정체감(18문항), 진로선택에 필요한 정보(4문항), 진로선택의 방해요인(4문항) 등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진로정체감 척도만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허자영(1996)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각 문항에 대해 예(Y), 아니오(N)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신뢰도 계수는 .831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707이었다.

진로효능감 평가. Crites(1978)의 진로성숙도 모형에 기초한 CDMSES(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cale; Taylor & Betz, 1983)의 50문항 중에서 Betz와 Voyten(1997)가 5개의 하위척도별로 5개의 문항들을 선별하여 구성한 총 25문항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단축형 척도(CDMSE-SF; Career Decision Making Self-Efficacy Short Form)를 연구자가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단축형의 근간이 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CDMSES; Taylor & Betz, 1983)는 진로결정에 요구되는 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개인의 신념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진로탐색 행동 평가. 담당 학사지도교수와의 면담 및 e-mail 문의, 전공소개 행사 및 공개 강좌 참가, 부모나 선배, 친구와의 진로 관련 대화의 빈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연구자가 문항을 구성하였다. 총 문항은 5개였으며, 프로그램 참가 전 예비면접과 프로그램 실시 3개월 후 추후 평

가시 사용하였다.

상담에 대한 기대 및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 진로결정 효능감, 진로탐색 증진에 대한 기대 정도와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Kennedy와 Heimberg (1986)가 개발한 인지행동 치료에서 치료에 대한 기대를 평가하기 위해 제작한 척도와 하은혜 (2000)의 치료에 대한 기대 및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척도를 종합하여 본 연구자가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회기별 만족도. 각 프로그램의 회기별 만족도 측정을 위하여 매 회기 실시 후 이메일로 연구자에게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대한 응답을 회신하도록 하였다.

자료분석

사전검사에서 집단 간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전검사에서 실시한 각 척도의 변인들에 대해 *t* 검증을 실시하여 처치 전 집단 간에 차이가 없음, 즉 실험(참가)과 통제(대기) 조건에 할당된 피험자들이 사전검사에서 서로 차이가 없음을 검증하였다.

집단 간 변화

사후검사에서 참가와 대기통제조건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가시기를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ANOVA를 실시하였다.

집단 내 변화

반복측정 ANOVA결과 상호작용이 유의한 변인들의 단순 주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조건 내

에서 사전검사, 사후검사간 쌍별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추후검사 변인인 진로탐색활동 변화에 대해서도 동일한 분석을 하였다.

결 과

집단상담 참가집단과 대기집단 간 사전평가 분석

사전평가에서 참가집단과 대기집단이 동질적인 집단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평가치에 대하여 *t*검증하였다. 그 결과 진로선택 확신도와 직업선택 확신도,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등 모든 평가치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두 집단은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물론 모든 사전평가 변인에서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진로지도 집단상담의 효과 분석

진로확신도에 미치는 효과

진로확신도는 진로선택확신도와 전공선택확신도에 대해 사전-사후 평가되었다. 표 1에 의하면, 프로그램 참가집단은 진로선택 확신도의 경우 사전 평가(1.80, SD=.70)에 비해 2.35(SD=.85)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집단은 사전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가 없었다(2.00, SD=.69).

진로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표 2에 의하면, 프로그램 참가 집단은 진로정체감의 경우 사전 평가(6.15, SD=2.49)에 비해 11.25(SD=3.35)점으로 증가하였으나 대기통제집단은 사전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화가 없었다(8.22, SD=4.90). 평가시기를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고 집단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여 반복 측정 ANOVA를 실시한 결과, 진로정체감은 시기와 집

표 1. 집단별 진로확신도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평가영역	집단구분	사전평가	사후평가	Paired t 값
진로선택확신도	참가집단	1.80(.70)	2.35(.85)	3.24**
	대기집단	2.00(.69)	2.00(.69)	.00
전공선택확신도	참가집단	1.70(.66)	2.65(.93)	4.79***
	대기집단	1.89(.58)	2.11(.76)	2.24*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집단별 진로정체감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평가영역	집단구분	사전평가	사후평가	Paired t 값
진로정체감	참가집단	6.15(2.49)	11.25(3.35)	5.47**
	대기집단	8.22(4.89)	8.22(4.80)	.00

주. * $p < .05$, ** $p < .01$, *** $p < .001$

표 3. 집단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평가영역	집단구분	사전평가	사후평가	Paired t 값
진로효능감 총점	참가집단	126.70(27.61)	158.40(19.59)	5.11***
	대기집단	126.33(43.41)	135.78(41.20)	2.02
- 직업정보	참가집단	25.30(7.31)	30.90(5.52)	4.17**
	대기집단	22.44(9.41)	25.11(8.38)	2.10
- 목표선정	참가집단	24.25(8.12)	31.65(6.76)	4.02**
	대기집단	24.11(9.23)	26.22(9.82)	1.34
- 계획수립	참가집단	25.65(6.60)	23.20(4.41)	5.18***
	대기집단	25.33(8.46)	27.44(8.76)	1.83
- 문제해결	참가집단	26.50(6.95)	30.20(5.99)	2.47*
	대기집단	28.44(9.38)	28.44(9.18)	.00
- 자기평가	참가집단	25.00(5.62)	32.45(4.14)	4.74***
	대기집단	26.00(8.60)	27.89(7.14)	1.49

주. * $p < .05$, ** $p < .01$, *** $p < .001$

단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F_{1,36} = 25.65, p < .001$). 대기집단의 사전-사후 평가점수간의 쌍별 t 검증 결과는 유의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평가시기를 피험자 내 변인으로 하고 집단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여 반복측정 ANOVA를 실

표 4. 집단별 진로탐색 활동수준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

평가영역	집단구분	사전평가	추후평가(3개월후)	paired t
전문가와 상담	참가집단	1.50(.76)	2.95(.40)	-8.540***
	대기집단	1.67(.69)	2.22(.43)	-4.610***
친구나 선배와 상담	참가집단	1.43(.68)	2.95(.39)	-8.396***
	대기집단	1.83(.70)	2.17(.38)	-2.915**
보호자와 상담	참가집단	1.90(.70)	2.80(.52)	-4.723***
	대기집단	1.78(.55)	2.33(.49)	-4.610***
진로관련행사	참가집단	1.29(.46)	2.95(.22)	-14.085***
	대기집단	1.28(.46)	1.56(.51)	-2.557*
진로정보탐색	참가집단	1.43(.60)	3.30(.47)	-17.085***
	대기집단	1.28(.47)	1.56(.51)	-.064

주. * $p < .05$, ** $p < .01$, *** $p < .001$

시한 결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시기와 집단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하였다($F_{1,36} = 7.93, p < .01$). 각 하위척도별 변화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의 변화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집단상담 과정 분석

진로탐색 활동수준에 미치는 효과

프로그램 참가집단은 대기집단에 비해 추후평가에서 진로탐색활동 빈도가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집단 별로 평가시기에 따라 유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보인 4가지 영역의 진로탐색활동 빈도

프로그램 효과에 대한 기대 및 만족도 평가

전반적인 기대감은 7.5점($SD = 1.0$)으로 이런 프로그램이 매우 효과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었다. 7주(6회)간의 집단 실시 후, 만족도 조사 결과, 전반적인 효과에 대한 평가는 8.6점($SD = 1.45$)으로 매우 도움이 되었다는 평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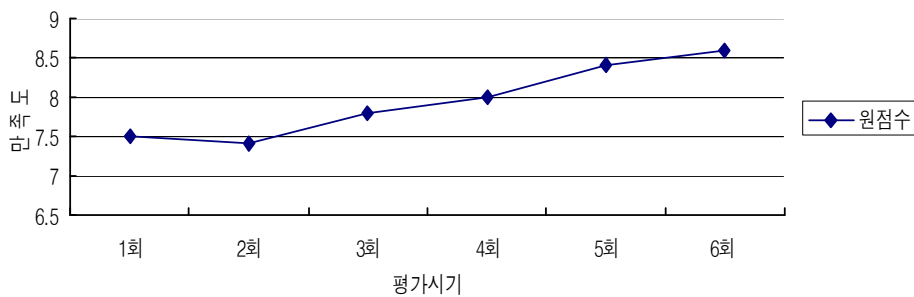


그림 2. 회기별 만족도 평가

사후면접에서의 만족도 평가

참가집단에 대한 진로 프로그램 각 회기별 만족도에 대한 메일 회신결과를 확인하면, 회기가 진행될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가집단의 회기별 만족도 변화는 그림 2와 같다.

호전군과 비호전군의 비교

진로지도 프로그램 참가집단은 사후 평가에서 대기집단에 비해 여러 가지 평가치에서 호전을 보였으나 개인별로 호전의 정도가 뚜렷한 경우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으므로 상담 효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에 대해 조사하였다. 임상군이 아니므로 긍정적인 변화의 양을 기준으로 호전과 비호전 집단을 구분하였다.

진로선택 확신도와 전공선택 확신도, 진로정체감 수준의 세가지 평가치에서 두 가지 이상이 사전-사후 평가의 차이 점수가 1표준편차 이상 호전되고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5가지 하위척도에서 2개 이상이 1표준편차 이상 호전된 경우를 호전집단으로 보았다. 호전 집단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사례는 전체 20명 가운데 13명(65.0%)이었고 비호전 집단으로 분류된 사례는 7명(35.0%)이었다.

호전 집단과 비호전 집단의 사후 평가치 비교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비호전 집단이 사전 평가치가 높아 상대적으로 변화된 호전의 양이 적어 비호전 집단으로 구분되었음을 추측케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사전평가에서 진로확신도와 진로정체감,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에 진로 프로그램 참가 후 호전의 양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와 관련된 낮은 확신이나 정체감, 자기효능감을 가진 경우도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진로결정을 위한 긍정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진로관련 정보탐색 활동 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의 긍정적인 변화량이 많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상담 효과를 가져오는 기제검증

상담의 효과를 가져온 기제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진로확신도, 즉 진로선택 확신도와 전공선택 확신도 사후 평가치를 예언변인으로 하고, 진로결정 효능감과 진로정체감, 진로탐색활동 척도의 사전-사후 변화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 5).

표 5. 사후 진로확신도에 대한 진로관련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예언변인	R^2	R^2 change	F
진로결정 효능감(사후-사전)	.204	.204	9.232**

주. ** $p < .01$

표 6. 사후 진로확신도에 대한 진로결정 효능감 하위 변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

예언변인	R^2	R^2 change	F
자기평가(사후-사전)	.270	.270	13.30**

주. ** $p < .01$

진로효능감의 하위 변인들이 진로확신도 변화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진로결정효능감 척도의 다섯 가지 하위변인들을 예언변인으로 하고 진로확신도 사후 평가치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 가지 하위변인 중에서 자기평가 척도만이 사후 진로확신도의 27%를 설명해 주었다(표 6).

논 의

본 연구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발달 연구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대상별로 차별화된 진로지도도를 시도하였다는 것이다. 본 진로계획 프로그램에서는 학력, 적성검사, 면접 자료를 통하여 연구자가 설정한 다재다능함의 기준에 부합하는 참가자를 선정하여 집단을 구성하였다. 지금까지의 진로지도도를 위한 집단 프로그램들이 일반적인 진로발달의 문제를 다루었을 뿐이었으므로, 본 연구에서 내담자의 특성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여 대상을 선발하고 차별화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시한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일이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다재다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발달 연구자료가 많지 않아 외국의 문헌조사를 통해 다재다능한 학생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나 진행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행연구와 유사한 경험들을 하였음을 발견하였다.

셋째, 다재다능한 특징으로 선발된 집단원들은 집단활동 내에서 일반적인 학생들과 다소 차별화된 활동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다재다능한 학생들의 집단과정 내에서의 활동 모습들은 진로 프로그램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집단 구성원을 6명 이내로 제한하였으며 6회기로 과정의 단기화를 시도하였다. 다재다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단활동에서 토론이나 개인발표 과제가 많거나 응집력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6명 내외의 소수로 집단을 구성하는 것도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개발된 프로그램은 기존의 진로지도 프로그램이 정보를 제공하고 성격이나 적성에 대한 검사결과를 이용하여 적절한 직업을 탐색하도록 도우는 것을 기본으로 구성된 것과는 다소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자신의 궁극적 가치와 정체감을 탐색해 나가는 과정 안에서 미래의 모습을 구체화하고 진로를 계획하도록 이끌고 있다. 여러 연구자들이 예측한 바와 같이(Colangelo, 1991; Webb, 1993), 다재다능한 이들은 많은 흥미 분야로 인해 한 가지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어려움을 느끼는데, 본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학생들도 능력이나 자기 확신의 부족보다 한가지를 선택하는데서 오는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였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함께 앞으로의 과제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참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다면화된 선발방식으로 일정인원 선별 후, 최종 선발하였음에도 긍정오류나 부정오류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본 연구에 참가한 피험자 수가 치료집단 20명과 대기집단 18명으로 적은 수라는 것이다. 보다 많은 수의 사례를 얻을 수 있다면 프로그램 효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다재다능한 학생들의 진로발달 특성들에 대해서도 더욱 검증되고 합의된 정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상담자 변인을 통제하고자 연구자 1인이 모든 집단을 운영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에 치료자 변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넷째, 평가방법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었다. 먼저, 사전 사후 평가 시기 간격이 2개월 미만으로 자기보고식 지필검사 형식으로 진행되어 연구자의 요구특성이 반영될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추후평가 시기를 1년 이상으로 잡고 평가자를 다양화하는 것도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와함께 진로결정에 대한 만족도 등을 추적조사하는 장기연구를 실시하는 것도 효과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 면에서 유의있는 시도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신입생들에 대한 예방적인 교육의 효과는 여러 연구들에서 입증되어 왔다(Rayman, Bernard, Holland, & Barnett, 1983). 신입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함께 이들의 구체적인 특성에 따라 대상 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진로지도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도되고 그 효과가 검증된다면 보다 효율적인 신입생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진로를 계획한다는 것은 일생을 설계하는 일과 같은 것이다. 일생에서 중요한 것을 꼽으려면 대부분이 사랑, 휴식(레저), 그리고 일을 들 것이다. 사랑과 휴식이 가족을 이루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포함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일, 직업일 것이다. 자신의 삶을 설계하는 자리에 선 대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한 올바른 진로지도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는 것과 함께 자신의 진로에 대한 계획도 보다 발전적인 형태로 수립되고

추구될 수 있는 교육적·사회적 지원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아청 (1998). 자기의 탐색. 교육과학사.
- 송용대 (1990). 영재교육이란 무엇인가? 명진사.
- 송재홍과 천성문 (1995). 청소년 진로발달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이론적 고찰. 서강대학교 인간의 이해, 16, 43-69.
- 연문희 (1985). 청소년들의 발달과업 성취를 위한 상담방법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발전연구소 교육발전논총, 7(1), 171-192.
- 연세대학교 학부대학 (2001). 연세대학교 1학년 학사지도 현황(미간행 자료).
- 연세대학교 학생상담소(1999, 2000). 연세상담연구, 15, 16.
- 윤여홍 (2000). 영재의 심리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상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9(1), 79-101.
- 이수용 (1986). 진로상담을 위한 가치명료화 프로그램. 계명대학교 지도상담, 11, 95-123.
- 이수용 (1988). 가치명료화훈련 유형간의 효과비교.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진, 조영아, 한종철 (2000). 우수학생들의 진로효능감 증진을 위한 가치-기초 진로상담 프로그램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2(2), 99-112.
- 이재신 (1996). 영재교육: 판별과 교육의 실제. 영재교육연구, 6(1), 107 -124.
- 하은혜 (2000). 문제행동 자녀를 둔 우울한 어머니에 대한 인지행동 집단치료의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허자영 (1996). 대학생 진로결정 유형에 관한 연

- 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6). The explanatory and predictive scope of self-efficacy theory. *Journal of Social and Clinical Psychology*, 4, 359-373.
- Berger, S. L. (1989). *College planning for gifted students*. Reston, VA: The 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
- Borgen, F. H. (1991). Megatrends and milestones in vocational behavior: A 20 year counseling psychology retrospectiv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9, 263-290.
- Clark, B. (1979). *Growing up gifted*. Columbus, OH: Charles E. Merrill.
- Cochran, L. (1983). Conflicts and integration in career decision schem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3, 87-97.
- Colangelo, N. (1991). Counseling gifted students. In N. Colangelo & G. A. Davis (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 (pp. 273-284). Needham Heights, MA: Allyn & Bacon.
- Colangelo, N., & Zaffrann, R. (1979). *New voices in counseling the gifted*. Dubuque, IA: Kendall-Hunt.
- Davis, J. E., & Rimm, S. (1985). *Education of the gifted and talented*. NJ; Prentice-Hall.
- Delisle, J. R., & Squires, S. (1989). Career Development for gifted and talented youth : Position statement of the Division on Career Development (DCD) and The Association for the gifted(TAG). *Journal for the Education of the Gifted*, 13, 97-104.
- Erikson, E.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Fox, L. H. (1976). Identification and program planning: models and method. In P. Keating (Eds.), *Intellectual talent: Research and development*. The Johns Hopkins Univ. Press.
- Fox, L. H., & Zimmerman, W. Z. (1985). Gifted Women. In J. Freeman (Ed.), *The psychology of gifted children* (pp. 219-243), John Wiley & Sons.
- Frederickson, R. H. (1972). *The multipotential as vocational decision-makers*. In R. H. Frederickson & J. W. M. Rothney (Eds.), *Recognizing and assisting multipotential youth* (pp. 58-78). Columbus, OH: Merrill.
- Frederickson, R. H. (1979). Career Development and the gifted. In N. Colangelo and R. Zaffrann (Eds.), *New voices in counseling the gifted* (pp. 264-276). Dubuque, IA: Kendall-Hunt.
- Hackett, G., & Betz, N. E. (1981). Self-efficacy approach to the career development of wome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8, 326-339.
- Hackett, G., & Lent, R. W. (1992). Theoretical advances and current inquiry in counseling psychology. In S. D. Brown & R. W. Lent, Jr. (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2nd ed., pp. 419-452). New York: Wiley.
- Holland, J. L., & Nichols, R. C. (1964).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ecision scale: The natural history of a problem in basic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11, 27-34.
- Holland, J. L., Daiger, D. C., & Power, P. (1980). Some diagnostic scales for research in decision-making and personality: Identity, information, and barri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9, 1191-1200.

- Howley, A., Howley, C., & Pendarvis, E. (1986). *Teaching gifted children: principles and strategies*. Boston: Little, Brown and Co.
- Kennedy, C. R., & Heimberg, R. G. (1986, November). Treatment credibility and client outcome expectancy: An evaluation of five treatment rationales.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Behavior Therapy, Chicago.*
- Kerr, B. A. (1981). *Career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Columbus, OH: Ohio State University, National Center for Research in Vocational Education.
- Kerr, B. A., & Erb, C. (1991). Career counseling with academically talented students : Effects of a value-based interven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3), 309-314.
- Kranz, B. (1978). *Multidimensional screening device (MDS) for the identification of G/T children*. Grand Forks, North Dakota: Bureau of Educational Research and Services, University of South Dakota.
- Lent, R. W., & Brown, S. D. (1996). Social cognitiv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An overview.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44*(4), 310-317.
- Lent, R. W., Brown, S. D., & Hackett, G. (1994). Toward a unifying social cognitive theory of career and academic interest, choice, and performa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45*, 79-122.
- Miller, J. V. (1981). Overview of career education for gifted and talented.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30*, 217-226.
- Michell, L. K., & Krumboltz, J. D. (1984). Research on decision making. In S. D. Brown & R. W. Lent(Eds.), *Handbook of counseling psychology*, 251-280. New York: Wiley.
- Osipow, S. H., Carney, C. G., Winer, J. L., Yanico, B., & Koschier, M. (1987). *The Career Decision Scale (3rd rev.)*. Odessa, FL: Psychological Assessment Resources.
- Platow, J. A. (1984). *A handbook for identifying the G/T*. Ventura County Superintendent of Schools Office.
- Raths, L. E., Harmin, M., & Simon, S. B. (1994). *가치를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정선심, 조성민 공역). 서울: 철학과 현실사. (원전은 1978년에 출판)
- Rayman, J. R., Bernard, C. B., Holland, J. L., & Barnett, D. C. (1983). The effects of a career on undecided college student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3*, 346-355.
- Renzulli, J. S. (1978). What makes giftedness: Reexamining a definition. *Phi Delta Kappa, 60*, 180-184.
- Roedell, W. C. (1984). Vulnerabilities of highly gifted children. *Roeper Review, 6*(3), 1-5.
- Rysiew, K. J., Shore, B. M., & Carson, A. D. (1994). Multipotentiality and overchoice syndrome: Clarifying common usage. *Gifted and Talented International, 9*(2), 41-46.
- Sanborn, M. P. (1979). Differential counseling needs of the gifted and talented. In N. Colangelo, & R. T. Zaffrann(Eds.), *New voices in counseling the gifted* (pp. 154-164). Dubuque, IA: Kendall-Hunt.
- Silverman, L. K. (1993). Career counseling. In L. K. Silverman (Ed.), *Counseling the gifted and talented* (pp. 215-238). Denver, CO: Love.

- Solberg, V. C., Good, G. E., Fischer, A. R., Brown, S. D., & Nord, D. (1995).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search activities: Relative effects of career search self-efficacy and human agenc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2(4), 448-455.
- Sullivan, K. R., & Mahalik, J. R. (2000). Increasing career self-efficacy for women: Evaluating a group interven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54-62.
-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 63-81.
- Webb, J. T. (1993). Nurturing social-emotional development of gifted children. In K.A. Hellen, F.J. Monks, & A.H. Passow (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and talent* (pp. 525-538). Pergamon Press.

원 고 접 수 일 : 2002. 3. 30

수정원고접수일 : 2002. 8. 29

계 재 결 정 일 : 2002. 9. 7

K C I

Effects of the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for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

Eun-Jin Lee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Career-Planning Program for the multipotential college students, and to evaluate effects of the program. The program designed to solve career-indecision problems of multipotentiality, and consisted of 2 sessions of training in identity exploration, 2 sessions of training in value-based decision making, and additional 2 sessions of training in goal-setting for career planning. The Career-Planning(CP) Group met a total 6 times in 2-hour weekly sessions and in addition a booster session was conducted at 3 months post treatment. Both the CP Group and the Waitlist Control(WL) Group were given pre- and posttreatment assessment on career certain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vocational identity. The results showed that at the posttreatment assessment the CP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degree of career certain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vocational identity and career exploration activity compared to the WL Group. At the 3 month follow-up assessment, CP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degree of career exploration activity compared to WL Control Group. The discussion focuses on implications for distinctive career-guidance on multipotential students,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Key Words : multipotentiality,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planning group counseling program